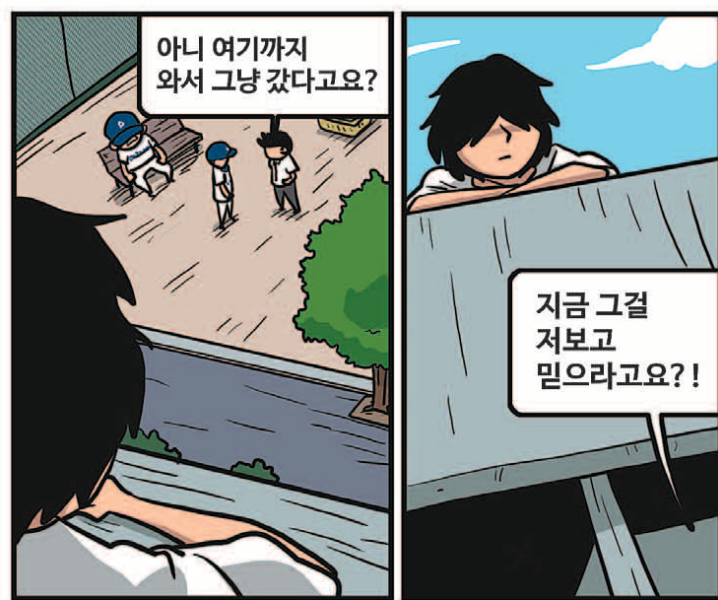


GM 드래프트의 날

By Choi Hoon < 55 >



※ 'GM 드래프트의 날'은 'sportsdonga.com' 에서 첫 회부터 보실 수 있습니다.

Culture diary

SWOT으로 보는 '굿바이 싱글'

싱글 탈출은 결혼뿐일까. 맛있는 싱글의 상징으로 통하는 김혜수는, 그 방법은 결혼이 아닌 '가족 만들기'라고 이야기한다. 29일 개봉하는 '굿바이 싱글'(감독 김태곤·제작 후두앤유엔터테인먼트)을 통해서다.

톱스타 고주연(김혜수)이 있다. 스무 살에 스타가 됐고, 그로부터 20년간 같은 자리를 지켰다. 유명세에 따르는 달갑지 않은 수식어도 가졌다. 예를 들면 '연하남 킬러' 또는 '발연기' 같은 것들이다. 이에 아랑곳하지 않는 고주연은 도도하고 섹시하다.



아이를 입양하려다 실패하고 직접 낳기로 결심한 고주연은 산부인과에서 우연히 중학생 단지(김현수)와 만나 깜찍한 '사기극'을 꾸민다. 한 집에 살면서 둘은 비슷한 처지의 상대에게 서서히 마음을 열고, 소통한다. 둘이 만든 거짓 말은 오래가지 않는다. 코미디로 시작한 영화는 그렇게 휴먼드라마로 진입한다.

STRENGTH(강점)···유쾌하게 시작해 몽글하게

김혜수는 출연 제의를 받고 "진정성 있는 이야기와 이를 만들려는 사람들에게 끌렸다"고 했다. 코미디 장르에 담긴 '무엇'이 그의 마음을 움직였을까. 궁극이 일 만한 발언이다.

마흔 살이 됐는데도 대책 없고 철도 없는 고주연은 조카(백연인(곽시양)과 요란한 연애 도중 제대로 '뉘통수'를 맞는다. 내심 결혼을 꿈꾼 상대가 자신보다 한참 어리고, 더 예쁜 여성과 '바람'이 난 탓이다. 좌절 끝에 고주연은 영원히 변치 않을 '내 편'을 만들기로 한다.

영화는 시작부터 김혜수가 끄리는 고주연의 매력을 섬 없이 내보인다. 실제로 '저런 여배우가 있겠지' 싶을 만큼 실감나고 유쾌하다. 또한 그의 죽마고우 친구 역의 마동석은 '정'으로 뽐뽐 뽐뽐. 덩치 큰 마동석의 말 한 마디, 행동 하나를 보고 있자면 왠지 웃음이 시큰해진다.

물론 웃고만 끝나는 코미디는 아니다. 사랑과 사람에 상처받은 고주연의 성장과 그 과정에서 만든 새로운 가족의 모습에서는 눈물 한 방울 푹 흘러게 하는 감동도 놓치지 않았다.

OPPORTUNITY(기회)···김혜수에 마동석까지

잔혹한 범죄를 그리거나, 이야기와 인간관계를 비틀고 꼬아 관객을 혼란에 빠뜨리는 한국영화가 최근 잇따랐다. 보는 동안 머릿속이 복잡해지는 영화들이다. '나의 피로'를 줄이고 한바탕 웃고 싶은 관객에게 '굿바이 싱글'은 안성맞춤이다. 스틸러와 액션, 시대극까지 한국영화에서 반복되는 장르가 지겨운 관객에게도 적합한 영화다.

사실 김혜수와 마동석이라는 존재부터가 관객의 호감지수를 상승케 하는 원동력. 10대부터 50~60대까지 아우르는 스타 김혜수와 '마요미'로 불리며 관객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마동석의 만남, 그 자체가 매력적이다.

THREAT(위협)···'혼돈'의 극장가

영화의 완성도가 흥행을 보장하는 시대가 아니다. '대진용'과 '상영관 수'는 흥행을 결정짓는 최대 변수. '굿바이 싱글'이 흥행 경쟁에 돌입하면서 이제 극장가도 여름 성수기에 본격 진입한다. 한국영화와 외화할 것 없이 기대감과 대작이 쏟아진다.

당장 '굿바이 싱글'과 같은 날에는 안성기·조진웅의 '사냥'과 블록버스터 '베전트 오브 타잔'이 개봉한다. 현재 흥행 주도권을 잡은 '인디펜던스 데이: 리써전스'와 '정글북'도 간과하기 어려운 대작이다. 이해리 기자 gott1024@donga.com

WEAKNESS(약점)···'골드미스'의 로망

'굿바이 싱글'은 성별, 나이와 상관없이 즐길 만한 영화다. 스타의 실상과 연예계의 이면을 엿보는 재미도 쏠쏠하다. 다만 고주연으로 대표되는 골드미스, 그녀가 돈과 능력, 거기에 사회적 지위까지 갖춘 40대 여성이 벌이는 거짓 임신 스캔들을 관객이 어떻게 받아들이지는 미지수다. 그 설정이 억지스럽지 않다면 영화에 온전히 빠져들 수 있다.

■ 새 영화

●사냥 | 29일 개봉 | 감독 이우철 | 주연 안성기·조진웅·한예리

본격 산악 추격 액션의 탄생이다. 발길이 끊긴 외딴 산에서 거대한 금맥이 발견된다. 이를 알아 채 동근(조진웅)은 금을 차지하려고 협사와 산에 오른다. 그 산은 과거 탄광 붕괴 사고로 사람들이 목숨을 잃은 곳. 당시 생존자 기성(안성기)은 산에 낫선 이들이 나타나자 그들을 뒤쫓는다. 영화는 '임산금지'라는 풋발을 비추면

서 출구 없는 산에 갇힌 사람들이 16시간 동안 벌이는 추격전을 그린다. 금을 차지하려는 협사 무리와 '사냥꾼'의 대결, 세상과 단절된 공간을 통해 금을 향한 인간의 탐욕을 적나라하게 그린다. 2011년 '최종병기 활'로 산악 추격전의 진수를 보여준 김한민 감독이 시나리오 각색과 제작을 맡았다.

●레전드 오브 타잔 | 29일 개봉 | 감독 데이비드 예이츠 | 주연 알렉산더 스카스가드·마고 로비

1914년 발간된 원작 소설의 주인공인 타잔이 스크린에 부활했다. 아프리카 밀림을 떠나 영국 런던에 정착한 타잔(알렉산더 스카스가드)은 연인 제인(마고 로비)과 함께 문명사회에 적응해 살아간다. 하지만 인간의 탐욕은 결국 그를 다시 밀림으로 이끈다. 익숙한 이야기, 친숙한 주인공은 강점이자 약점. 그간 영화는

물론이고 300여 편의 TV 시리즈로도 나왔다. 반면 기술력으로 구현한 웅장한 밀림 그리고 타잔과 고릴라의 힘 있는 결투가 볼거리. 최근 200만 관객을 모은 '정글북'에서 이어지는 이야기로 봐도 손색없다. '해리포터' 시리즈 가운데 총 4편을 연출한 감독의 흥행 감각이 엿보인다.

뉴스디자인 | 김철조 기자 minigram@donga.com

Biz gallery

천호식품, 탈모개선 '놀크린우먼' 수입판매

영국시장 1위 탈모개선 건강기능식품 '놀크린우먼'(사진)이 국내에 상륙한다. 천호식품(대표 김영식)은 28일 덴마크 바이오 기업 파마메디코와 '놀크린우먼'의 국내 독점 판매 계약을 체결했다. 놀크린우먼은 천연원료 기반의 세계 1위 여성 모발성장 건강기능식품으로, 균형이 깨진 모발 성장주기와 모낭의 수명, 기능을 정상화해 탈모를 개선하고 모발이 건강하도록 돕는다. 미국, 프랑스, 독일 등 전 세계 20여개 국가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특히 유럽 대표시장인 영국에서는 20년간 판매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놀크린우먼은 임상 실험 결과 놀크린 섭취 고객 중 83%가 효과를 경험했으며, 모발성장활동이 35.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2년 모발성장문제로 고통 받는

여성들의 삶의 질 개선을 인정받아 세계 최초로 세계모발학회 전문가들이 뽑은 금메달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유럽 저널에서 탈모분야 선도 제품으로 선정되었으며, 2014년부터 2년 연속 영국 약사들이 선정하는 모발분야 우수제품상도 수상했다.

동국계약, 세계리틀리그 대회 후원

동국계약(대표이사 이영욱)이 한국리틀야구연맹에서 주관하는 '2016세계리틀리그 아시아-태평양&중동지역 대회'를 후원한다. 이 대회는 아시아태평양 및 중동지역 11개 국가가 참가하며 한국에서는 1983년 이후 33년 만에 개최된다. 지난 25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오는 7월2일까지 장충리틀야구장과 남양주리틀야구장에서 총 33경기가 진행된다. 이번 대회 우승 팀은 유소년 야구의 월드컵 시리즈 격인 '세계 리틀리그 월드컵'에 아시아-태평양 대표로 출전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하게 된다. 한국팀은 지난 2014년 대회에서 우승

하며 '세계 리틀리그 월드컵'에 진출해 최종 우승을 차지했다.

곤지암 패밀리스파 야외존 7월1일 오픈

서브윈 곤지암리조트는 패밀리스파 야외존(사진)을 7월1일 오픈한다. 3000㎡ 규모로 물놀이와 함께 다양한 스파를 즐길 수 있다. 인도어풀에는 마사지링, 액티브 풀, 사하라룸, 카페 등이 있고 야외스파존에는 25m의 스위트풀을 비롯해 어린이 전용 공간 IQ풀, 마인드풀 등을 갖추고 있다. 에어버블로 수(수)치료를 즐기고 감성조명을 이용한 컬러 테라피를 경험할 수 있는 마인드풀은 녹음 힐링 리조트 전경을 즐길 수 있는 명당으로도 손꼽힌다.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하고, 여름 성수기 기간(7/15~8/28)에는 주말요금을 적용한다.

제주항공, 코타카나발루·삿포로 신규 취항

에경그룹 계열 저비용항공사(LCC) 제주항공은 7월20일 일본 인천-삿포로 노선과 인천-말레이시아 코타카나발루 노선을 신규 취항한다. 제주항공은 29일 오전 10시부터 7월27일 오후 5시까지 탑승일 기준 8월1일부터 10월29일까지 인천-삿포로 15만3000만원, 인천-코타카나발루 12만8000원의 특가요금으로 판매한다. 이 같은 특가유임은 예매일자와 환율변동에 따라 총액 유임은 일부 변동될 수 있다. 예매는 제주항공 홈페이지, 모바일 앱과 웹에서만 가능하다. 제주항공은 또한 코타카나발루와 삿포로의 현지 여행정보를 제공하고 선택 여행상품 등의 예약을 도와주는 '자유여행 라운지'를 29일 온라인부터 운영한다.

서울 웨스틴조선 '그릴드 앤 칠드' 패키지

서울 웨스틴조선은 8월 31일까지 '그릴드 앤 칠드' 패키지(사진)를 실시한다. 구매 고객에게 바비큐 플래터&비어 2인 이용권을 제공한다. 나인스 게이트그릴, 베키아 에 누보, 인룸 다이닝 중 한 곳에서 바비큐 플래터 메뉴로 선택 가능하다. 나인스 게이트그릴과 베키아 에 누보에서는 스텔라 아르투아 생맥주를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고, 인룸 다이닝은 스텔라 아르투아 병맥주 6병을 제공한다. 수영장과 피트니스 센터를 이용할 수 있고, 이그제큐티브룸 이상 예약하면 2층 라운지에서 조식과 애프터눈 스낵, 카테일을 즐기는 카테일 아워가 포함된다.

